창간1주년 특집 I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불자다운 수행을 하려거든—46선지식이 들려주는 생활법문

현대불교는 창간과 함께 지상 법석을 통해 고승들의 법문을 인기리에 연재해 오고 있다. 촌음을 아끼며 혼신의 정열로 수행하고 있는 큰스님들 가르침의 핵심을 다시 듣는다. 〈무순〉

"아상·욕심 남김없이 버리면 천진은 한몸이니 혼자 살 수 없어

월하 스님 〈조계종 종정〉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기가 지은 만큼 복을 받기도 하고 잘못하면 벌은 받는 것이지 다른 누가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주듯 복을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굶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그만이고 적당히 입으면 그만이지 좋은 것 갖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사람사람이 다 자기의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닦아서 빛을 내면 일월보다도 밝아요.

승찬 스님 〈송광사 방장〉

인생살이가 모두 반조의 시간이요, 참선의 시간이 되야 합니다. 반찬거리를 사러 가서도,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비춰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한낱 몸뚱이의 움직임일 뿐이고 그것을 알면 인간의 생명을 가치있게 이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담 스님 〈수덕사 방장〉

불교는 나 자신이 나를 깨닫는 법이지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일념으로 참선을 해보십시오. 미묘한 지혜가 나오며 천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이 나옵니다. 사업하더라도 참선을 하면 운영의 지혜나 난관 극복의 지혜가 나오며, 공동운명체로 화합하며 살 수 있는 슬기도 나옵니다.

청화 스님〈태안사 조실〉

어느 것도 진여법성, 부처님 아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한 생각 잘못 비뚤어져서 '저것은 부처가 아니다, 이것은 부처다'고 분별하는 마음 자체가 체를 여의고서 상에 얽매이는 미망인 것입니다.

자기의 본래면목을 바로 참구하는 공덕보다 더 수승한 보배는 없습니다.

숭산 스님 〈화계사 조실〉

생각을 버립시다. 생각으로써 본체를 찾고 우주의 근본을 찾는 것은 안됩니다. 내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참선을 해야 합니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해 살게되면 내 본래 마음을 모릅니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하지 아니했을 때 내 본래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본 성품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덕암 스님 〈태고종 전 종정〉

부처님의 교법에 의하여 번뇌와 망상을 없애버리면 우리도 부처님같은 깨달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한편, 나에게도 분명히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 아닌 다른 절대자의 능력을 믿으려 하고 권력이나 금력만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또는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범하면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혜암 스님 〈해인사 방장〉

부처님 계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는 등의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상(名相)에 의지해서 계첩을 받거나 말 몇마디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계(眞如自性戒)를 받아서 자성을 바로 깨칠 것 같으면 이것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고 귀신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삿되면 마구니가 되고 우리 마음이 바르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지요.

> 사람이 다 자기의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닦아서 빛을 내면 일월보다도 밝아요

월산 스님 〈불국사 조실〉

참선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잡스런 것을 마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단정히 하고 생각의 뿌리를 한 곳에 모으고 진리의 본체를 밝혀내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그 근본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자신이 어디서 왔느냐, 그 근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웅 스님 〈파계사 성전암 조실〉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에겐 조각난 그릇도 맞추다 보면 국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맞추려 하지 않고, 조금 깨어진 그릇이라 해서 집어 던져버리면 산산조각이 나서 영원히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되도록 서로 맞추려 애쓰고, 이해하고 칭찬하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룡 스님 〈학성선원 조실〉

우리의 행위가 전생의 행동과 그대로 연결이 되고, 앞으로 이 버릇과 행동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에 지금 여기에서 짓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습관은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

이 버릇을 고쳐나가는 사람, 향상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성수 스님 〈법수선원 조실〉

자신의 신체 하나 하나를 잘 관리하지 못한 채 부처님 앞에 절만 꾸벅꾸벅 하는 것은 껍데기 불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발원해 놓고 실행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벌을 설줄 알아야 하고 불자로서 참회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구정물이 맑아지면 저절로 피가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눈이 맑아집니다.



누가 하는가 "인생살이가 모두 반조의 시간이요 참선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반찬거리를 사러가서도,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비춰보십시오. 내가 지금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한낱 몸뚱이의 움직임일 뿐이고 그것을 알면 인간의 생명을 가치있게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사진은 재가선방에서 참선정진하는 모습.)

생활이 곧 불법이니 따로 구하지 말라

근일 스님 〈부석사 조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고,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행하는 것이 더 낫고, 백번 행하는 것보다 한번 깨닫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인생의 지도자를 멀리 찾아서는 안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인생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나 자신입니다.

여섯 도적놈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또 잘 굴리면 바로 부처가 됩니다.

관응 스님 〈직지사 조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집착을 하면 그른 것이 되어 버립니다. 돈에 집착을 하면 돈의 종이 되고, 음식에 집착을 하면 몸에 탈이 나게 됩니다. 또 약을 먹으면 몸이 낫지만 거기에 집착하여 과용하면 중독이 되어 생명을 잃게 됩니다.

화산 스님 〈보광원 조실〉

오랫동안 익혀온 10가지 악행과 악업 때문에 업장(業障)이 가려 자신에게 있는 경(經)을 볼 줄 모릅니다. 사람마다 무진 한량없는 보배가 자기 자신에게 있건마는 알지 못하는 까닭에 부처님이 옷자락을 걷어 올리며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경을 읽으려 하지 않고 남의 경만을 읽으려 합니다. 자꾸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정일 스님 〈보광사 조실〉

대낮같이 밝아 있는 자기 마음만 요달(了達)하면 되는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아는 체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을 잠시도 못 버려서, 일체 모든 것에서 내니, 너니 하는 생각을 떠나지 못하여, 이 몸뚱이에 꽉 집착을 해서, 나로 삼아서 내게 해가 되는 것은 남이라고 해서 제 몸 편에만 들어서 응원하니, 응원하는 게 싸움시키는 것입니다.

운경 스님 〈봉선사 주지〉

수행하는 바른 자세는 나의 고통을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고 진정 내 자신의 문제는 내 자신이 풀어갈 주체임을 자각하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어서 어떤 절대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만큼 받는 철저한 인과를 인식하는 것만이 자기의 근원적인 주체인 것입니다.

진제 스님 〈해운정사 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증득(證得)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신심(大信心)과 하늘을 찌를 듯한 용맹심을 갖춘 이에게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과 같이 쉽거니와, 신심이 없고 정법정안(正法正眼)의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참선을 해도 안 되는 원인은 간절한 일념(一念)에서 구하지 않는데 허물이 있습니다.

서옹 스님 〈백양사 조실〉

우리의 일거일동은 이 불가사의한 법계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내는 한량없는 공덕이 되는 것이니 조그마한 불사가 아니라 바로 무한의 부처 마음자리 작용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모습이 인간상인 것이며, 인간의 참다운 실존이 바로 부처님이지 따로 부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지도자를 멀리 찾아서는 안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인생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나 자신입니다.

자신의 주장자를 먼저 세우십시오.

혜암 스님 〈해인사 방장〉

부처님 계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는 등의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상(名相)에 의지해서 계첩을 받거나 말 몇마디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계(眞如自性戒)를 받아서 자성을 바로 깨칠 것 같으면 이것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고 귀신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삿되면 마구니가 되고 우리 마음이 바르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지요.

일타 스님 〈은해사 주지〉

적어도 불자라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자기 속을 차리고 자력(自力)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행수를 바라고 하는 기도는 마음에 잔뜩 때를 끼게 하고, 언젠가는 사도(邪道)로 빠져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로 법문을 들음에 있어서는 나에게 맞는다는 생각이나 맞지 않는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까지도 비워야 합니다.

극락세계는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염불도 입으로만 아미타불을 외고 생각은 엉뚱하게 쓰면 그것은 염불이 아닙니다. 즉 신념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산 스님 〈염불선원 조실〉

요새 사람들은 아만심이 있어 내 눈에 안 보이면 극락세계,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심공부를 하게되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공덕을 쌓게 됩니다.

정하 스님 〈통도사 부방장〉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처님과 삼세제불이 출현해도 이것은 어쩔 수 없고, 역대 제대조사가 출현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대우주는 침묵하면서도 큰 변제를 설법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봄법문을 하고 여름에는 여름법문을 하고 추우면 바람소리, 물소리, 저 단풍잎도 대 자연의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원암 스님 〈수덕사 방장〉

불교는 나 자신이 나를 깨닫는 법이지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일념으로 참선을 해보십시오. 미묘한 지혜가 나오며 천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이 나옵니다. 사업하더라도 참선을 하면 운영의 지혜나 난관 극복의 지혜가 나오며, 공동운명체로 화합하며 살 수 있는 슬기도 나옵니다.

승찬 스님 〈송광사 방장〉

인생살이가 모두 반조의 시간이요, 참선의 시간이 되야 합니다. 반찬거리를 사러 가서도,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비춰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한낱 몸뚱이의 움직임일 뿐이고 그것을 알면 인간의 생명을 가치있게 이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숭산 스님 〈화계사 조실〉

생각을 버립시다. 생각으로써 본체를 찾고 우주의 근본을 찾는 것은 안됩니다. 내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참선을 해야 합니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해 살게되면 내 본래 마음을 모릅니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하지 아니했을 때 내 본래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본 성품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덕암 스님 〈태고종 전 종정〉

부처님의 교법에 의하여 번뇌와 망상을 없애버리면 우리도 부처님같은 깨달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한편, 나에게도 분명히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 아닌 다른 절대자의 능력을 믿으려 하고 권력이나 금력만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또는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범하면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월산 스님 〈불국사 조실〉

참선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잡스런 것을 마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단정히 하고 생각의 뿌리를 한 곳에 모으고 진리의 본체를 밝혀내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그 근본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자신이 어디서 왔느냐, 그 근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웅 스님 〈파계사 성전암 조실〉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에겐 조각난 그릇도 맞추다 보면 국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맞추려 하지 않고, 조금 깨어진 그릇이라 해서 집어 던져버리면 산산조각이 나서 영원히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되도록 서로 맞추려 애쓰고, 이해하고 칭찬하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룡 스님 〈학성선원 조실〉

우리의 행위가 전생의 행동과 그대로 연결이 되고, 앞으로 이 버릇과 행동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에 지금 여기에서 짓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습관은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

이 버릇을 고쳐나가는 사람, 향상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근일 스님 〈부석사 조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고,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행하는 것이 더 낫고, 백번 행하는 것보다 한번 깨닫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인생의 지도자를 멀리 찾아서는 안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인생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나 자신입니다.

여섯 도적놈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또 잘 굴리면 바로 부처가 됩니다.

관응 스님 〈직지사 조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집착을 하면 그른 것이 되어 버립니다. 돈에 집착을 하면 돈의 종이 되고, 음식에 집착을 하면 몸에 탈이 나게 됩니다. 또 약을 먹으면 몸이 낫지만 거기에 집착하여 과용하면 중독이 되어 생명을 잃게 됩니다.

화산 스님 〈보광원 조실〉

오랫동안 익혀온 10가지 악행과 악업 때문에 업장(業障)이 가려 자신에게 있는 경(經)을 볼 줄 모릅니다. 사람마다 무진 한량없는 보배가 자기 자신에게 있건마는 알지 못하는 까닭에 부처님이 옷자락을 걷어 올리며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경을 읽으려 하지 않고 남의 경만을 읽으려 합니다. 자꾸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정일 스님 〈보광사 조실〉

대낮같이 밝아 있는 자기 마음만 요달(了達)하면 되는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아는 체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을 잠시도 못 버려서, 일체 모든 것에서 내니, 너니 하는 생각을 떠나지 못하여, 이 몸뚱이에 꽉 집착을 해서, 나로 삼아서 내게 해가 되는 것은 남이라고 해서 제 몸 편에만 들어서 응원하니, 응원하는 게 싸움시키는 것입니다.

운경 스님 〈봉선사 주지〉

수행하는 바른 자세는 나의 고통을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고 진정 내 자신의 문제는 내 자신이 풀어갈 주체임을 자각하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어서 어떤 절대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만큼 받는 철저한 인과를 인식하는 것만이 자기의 근원적인 주체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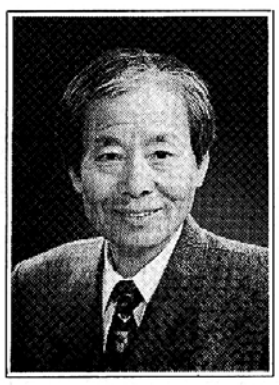
진제 스님 〈해운정사 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증득(證得)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신심(大信心)과 하늘을 찌를 듯한 용맹심을 갖춘 이에게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과 같이 쉽거니와, 신심이 없고 정법정안(正法正眼)의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참선을 해도 안 되는 원인은 간절한 일념(一念)에서 구하지 않는데 허물이 있습니다.

축 창간1주년

전국 2천만 불자님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전국에 계신 불교신도 여러분!

불교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45년간의 설법내용은 우리가 이대로 본래 부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6도중생 모두가 본래불성이 있는데도 무명업식 때문에 망상을 굴려 어리석게 근심, 걱정, 고통을 만들어 윤회를 못벗어나 삼악도를 갔다 왔다 하고 있으며, 인간보다 행복한 하늘의 하느님도 부처님 공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불교 공부가 무엇보다도 더 시급합니다.

우주 전체가 모두 虛妄하고 가짜이며 오직 부처님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장대한 팔만대장경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10法界에 4성현과 6도중생을 모두 창조하였습니다. 우리중생의 진짜 부모님은 부처님이시며 하느님과 아수라 인간 등의 부모님은 부처님입니다. 우리 모두 불교 공부하여 2천년대·21세기에는 선진국의 일류국가 국민되어 이대로 불국토를 이룹시다.

저는 매일 神妙章句大다라니를 100번 염불독경후 전세계 50억 인구가 세계평화 속에 행복할 수 있도록 매일 매일 12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태민안하고 세계속에 가장 살기좋은 나라 되게하라고 기도하며 이 지구상에 전쟁없고, 삼재 없도록 해달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교를 믿읍시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우리 집안이 잘 되며 아들 딸들이 사회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일등국민 되게 하는 방법은 오직 부처님 진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全國佛教信徒團體協議會 代表會長

법사 日田 金 容 稷 合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40만번 독송한 신통력을 득한 법사임)

체계적인 불교교리 공부를 위한

능엄경(楞嚴經) 강좌

◎일 시 : 매주 금요일 14 : 00(60분)
◎장 소 : 대원회(大圓會) (용산구 후암동)
◎문의전화 : 754-1613
◎법 사 : 日田 金 容 稷 合長

육조단경(六祖壇經) 강좌

◎일 시 : 매주 수요일 15 : 00(60분)
◎장 소 : 묘각사(妙覺寺) (동대문구 신설동)
◎문의전화 : 763-3345
◎법 사 : 日田 金 容 稷 合長

유마경(維摩經) 강좌

◎일 시 : 매주 월·화요일 19:00~20:00(60분)
◎장 소 : 日田禪院 (중랑구 면목동)
◎문의전화 : 491-0123
◎법 사 : 日田 金 容 稷 合長